

초등학생의 휴대전화이용 수준과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연구

Children's cellular phone usage and relationships between the usage and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이경선 · 이정화*

동명대학교 유아교육과 ·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Lee, Gyeong Seon · Lee, Jeong Hwa

College of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ongmyong University ·

College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investigated elementary school children's cellular phone usage and relationships between the usage and their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The data were collected by boys(101) and girls(155) among 5th grades, boys(125) and girls(177) among 6th grades elementary school in Busan. The data analyzed with the frequency, percentage, mean, SD and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in use of SPSS Win 12.0 program.

The results from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ildren's general usage of cellular phone in terms of grade and sex. Second, it was found in a couple of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categories of the usage according to grades. The 6th grades children is higher scores than 5th grades in the 'control of cellular phone usage' and 'living trouble'.

Third, there was correlated negatively between cellular phone usage and the children's self-efficacy/self-control.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children, cellular phone usage, self-efficacy, self-control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휴대전화는 단순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넘어서서 생활양식, 대인관계, 가치관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매체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통계자료(2008, 2. 20)에 의하면, 2007년 12월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4,3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실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영·유아 등을 제외할 경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휴대전화 이용 연령이 빠르게 하

향화되고 있다. 2005년 말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에 가입한 초등학생 수는 약 120만 명이지만 부모이름으로 가입한 경우가 40%나 돼 실제 초등학생 이용자는 2.7명당 1명꼴인 1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재학, 2006). 이처럼 휴대전화 이용자가 성인에서 청소년, 다시 초등학생으로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은 학교현장에서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휴대전화문자 남용에 따른 사고의 단순화와 글쓰기 능력의 퇴화, 성인 유험광고에 대한 무방비적 노출, 상시 사용에 따른 집중력과 학습능률 저하 등은 휴대전화 중독에 따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언급되고 있다.

2000년 이후 휴대전화 중독은 사회적 관심("대학생 휴대폰의존 심각", 2002; "휴대전화중독", 2004)과 더불어 학

* Corresponding author: Jeong Hwa Lee
Tel: 051) 629-5497, Fax: 051) 629-5493
E-mail: jlee@pknu.ac.kr

문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수행된 휴대전화 연구에 관한 경향과 한계점을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설계에 관한 부분이다. 휴대전화 중독집단의 특징을 규명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실험집단 내에서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중독과 비중독 혹은 중독점수의 상, 중, 하 등의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강동진, 2005; 박민주, 2004; 김재인, 2007; 김정숙, 2003; 양심영, 2002; 이병길, 2005; 정재원, 2006; 황광민, 2005).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이러한 연구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이순목 외(2007)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비록 연구집단의 상위 점수 구간에서 구한 평균점수와 그 아래 구간에서 구한 평균점수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차이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상대비교를 위한 의미이지 '인터넷중독' 영역에 비추어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중독에 대한 해석이 제한을 받거나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선과 이정화(2008)도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중독의 특징을 비교하는 연구에 관한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둘째, 휴대전화 관련 연구대상의 편중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고등학생에 편중(김선남, 김현옥, 2003; 김병구 외, 2006; 이명규, 2002; 장혜진, 2002; 최병목 외, 2005)되어 있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휴대전화 소지여부와 중독범위에 드는 피험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연구대상을 중학생 이상으로 하는 것이 연구에 훨씬 용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휴대전화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컴퓨터와 달리 문자와 동영상 등 각종 정보가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쉽게 전달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인터넷이나 TV에 비해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독과 관련 높은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면 자기 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을 들 수 있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일반적으로 자기 효능감은 인터넷, 약물, 알코올 등 여러 종류의 중독적 행동의 시작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독습관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송원영, 1998; 윤숙진, 2004; Kraut & Patterson, 1998).

자기통제력(self-control)은 외부의 지시나 감독없이도 사회적, 상황적 요구에 따라 행동을 제지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Kopp, 1982). 자기통제력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부족하면 충동조절 장애나 중독적인 형태가 쉽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송원영, 1998; 이계원, 2001; Logue, 1995; Young, 1996).

휴대전화중독과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일관된 부적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경미(2005)의 연구에 의하면 휴대전화 중독집단은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낮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장혜진(2002)과 김은경(2007)도 이동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집단의 자기통제감이 낮게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한주리와 허경호(2004)는 이동전화 중독척도의 타당도를 밝히기 위한 변인으로 자기통제력을 이용하여 상관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은 중·고등학생의 휴대전화중독을 잘 설명해주는 변인이라 볼 수 있다.

비록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이용이 진단척도에 의해 중독집단으로 분류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휴대전화 이용이 경계해야 할 수준에 있다면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과는 부적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휴대전화중독과 관련있는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초등학생 휴대전화 연구에 대한 설명과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심리적 변인과의 관련 외에 성별에 따른 차이도 휴대전화 관련 연구에서 의미있게 보고되고 있다. Ling, Rutiainen과 Kasesniemi는 남자청소년들은 휴대전화를 대상(object)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으며, 휴대전화가지고 있는 오락성, 과시적, 기술적 측면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자청소년들은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휴대전화를 활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최병목 외, 2005,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성별차이에 따른 휴대전화이용의 차이가 초등학교 시기에도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휴대전화 이용에서 더 높은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이은형(2006)의 연구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중독 또는 중독적 사용이라는 병리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실험집단 내에서의 집단간 비교(예, 많이 사용하는 아동 vs 작게 사용하는 아동)를 통한 특징 규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년과 성별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 수준을 구성하는 하위영역별 차이를 규명하고,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를 통해 초등학생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경향을 알아봄으로써 휴대전화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휴대전화 이용수준은 어떠한가?

1-1. 휴대전화 이용수준의 하위영역별(휴대전화 통제, 정서적 의존, 일상생활의 장애, 금단) 차이는 어떠한가?

1-2. 학년, 성별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휴대전화 이용수준과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6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아동 58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조사 후 578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20부를 제외한 나머지 558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최종분석에 포함된 아동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학년	남	여	계 (%)
5학년	101	155	256 (45.9)
6학년	125	177	302 (54.1)
전체(%)	226(40.5)	332(59.5)	558(100.0)

2. 측정도구

1) 휴대전화이용 수준 척도

휴대전화의 이용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는 장혜진(2002)이 Young(1996)의 인터넷 중독검사와 Goldberg(1996)의 중독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20문항의 휴대폰중독 질문지를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지를 수정하였고, '휴대전화 통

제', '정서적 의존', '일상생활의 장애', '금단'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초등학교 5, 6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의 신뢰도는 하위영역별로 .70 - .77 사이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휴대전화 통제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느낌을 말하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휴대폰을 사용한다' 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었다. 정서적 의존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거나 초초해지는 것으로 심리적 의존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휴대폰이 없다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었다. 일상생활의 장애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가정이나 학교생활에 소홀해지게 되는 것을 말하며, '휴대폰 때문에 수업시간에 소홀해지고 성적이 떨어진다' 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금단은 휴대전화에 대한 강박적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전화나 문자가 왔는지 먼저 확인한다' 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었다.

측정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며, 총점은 20점에서 100점 사이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이용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2> 휴대전화이용 수준의 하위 영역별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 수	Cronbach' s α
휴대전화 통제	5	.70
정서적 의존	5	.77
일상생활의 장애	5	.75
금단	5	.72
계	20	.88

2) 자기효능감 척도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 척도는 주로 특정장면이나 과제와 관련된 상황이나 특정과제에 대한 효능을 기대하는 개념으로 적용되어 왔으며(Bandura & Schunk, 1981; Zimmerman & Bandura, 1994), 이러한 좁은 범위의 효능감 측정은 광범위한 맥락속에서의 수행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김아영, 박인영, 200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업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학생에게 적절한 김아영, 박인영(2001)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Academic self Efficacy, AS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수준선택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

<표 3>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

하위 영역	문항 수	Cronbach's α	
		김아영 외 연구	본 연구
자신감	8	.77	.69
자기조절 효능감	10	.88	.86
과제수준선호	10	.90	.67
계	28		.85

량(6점) 까지 6점 Likert척도이며 총점의 범위는 28~168점 사이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67 ~ .86으로 나타났다(<표 3>참조)

3) 자기통제력 척도

자기통제력 측정은 Kendall과 Wilcox(1979)가 제작한 자기통제력 척도(Self-Control Rating Scale: SCRS)와 Humprey의 T-SCR 도구를 변안하여 청소년에게 맞도록 수정한 것을 남현미(1999)가 재구성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장기적인 만족에 관한 문항 10개와 즉각적인 만족에 관한 문항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는 보다 집중력이 있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며,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는 충동적이고 자신위주로 생각하며,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경향이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총점은 20점에서 100점까지다. 남현미(1999)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통계분석을 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의 휴대전화이용 수준의 하위영역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문제 2의 학년, 성별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휴대전화이용 수준의 하위영역별 차이를 위해서는 t-검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의 휴대전화 이용수준의 하위영역과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과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휴대전화이용 수준의 하위영역별 차이

초등학생의 휴대전화이용 수준이 하위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하위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표 4> 참조). 휴대전화 이용수준의 하위영역별 평균은 금단(M=10.54)이 가장 높았고, 휴대전화통제(M=8.78), 정서적 의존(M=8.31), 일상생활의 장애(M=7.8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휴대전화이용 수준의 하위영역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n=558)

하위 영역	평균	표준편차
휴대전화통제	8.78	3.61
정서적 의존	8.31	3.78
일상생활의 장애	7.87	3.28
금단	10.54	4.05
전체	8.88	3.68

2. 학년 및 성별에 따른 휴대전화 이용수준

학년과 성별에 따른 휴대전화 이용수준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학년별 휴대폰이용 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6학년(M=36.54)이 5학년(M= 34.29)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성별차이를 보면 여학생(M=35.72)이 남학생(M=35.1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6> 참조).

<표 5> 학년과 성별에 따른 휴대폰이용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학년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5학년	남	101	34.97	10.95
	여	155	33.85	11.99
	전체	256	34.29	11.58
6학년	남	125	35.37	13.74
	여	177	37.36	13.21
	전체	302	36.54	13.44
합계	남	226	35.19	12.54
	여	332	35.72	12.76
	전체	558	35.51	12.66

<표 6> 학년과 성별에 따른 휴대전화이용 점수에 대한 분산분석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학년	508.957	1	508.957	1.576
성별	25.513	1	25.513	
학년×성별	322.848	1	322.848	.079
오차	88250.429	554	159.297	2.027
합계	89315.471	557		

1) 학년에 따른 휴대전화이용 수준의 하위영역별 차이

학년에 따른 휴대전화이용 하위영역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의하면, 전체 아동의 휴대전화 이용 수준의 하위영역 점수는 6학년이 5학년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5학년의 경우 금단, 휴대전화 통제, 정서적 의존, 일상생활의 장애 순으로, 6학년의 경우에는 금단, 휴대전화 통제, 일상생활의 장애, 정서적 의존 순으로 휴대전화이용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금단’과 ‘휴대전화 통제’ 영역은 5, 6학년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금단’영역은 5학년의 경우에도 점수가 높게(M=10.22)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역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통제’ 영역에서는 $t=-2.614(p<.01)$, ‘일상생활의 장애’ 영역에서는 $t=-4.203(p<.001)$ 로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학년별 차이는 ‘휴대전화 통제’와 ‘일상생활의 장애’영역에서만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휴대전화이용 수준 하위영역별 차이

성별에 따른 휴대전화이용 수준의 하위영역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8>에 따르면, 남아와 여아 모두 ‘금단’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휴대전화 통제’, ‘정서적 의존’, ‘일상생활의 장애’영역 순으로 점수가

<표 7> 학년에 따른 휴대전화이용수준 하위영역별 점수에 대한 t-검증

하위영역	학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휴대전화 통제	5	256	8.35	3.34	-2.614**
	6	302	9.15	3.79	
정서적 의존	5	256	8.28	3.69	-.188
	6	302	8.34	3.86	
일상생활의 장애	5	256	7.26	2.89	-4.203***
	6	302	8.39	3.50	
금단	5	256	10.41	3.88	-.724
	6	302	10.66	4.19	

p < .01, *p < .001

<표 8> 성별에 따른 휴대전화이용 하위영역별 점수에 대한 t-검증

하위영역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휴대전화 통제	남	226	8.96	3.72	.980
	여	332	8.66	3.53	
정서적 의존	남	226	8.15	3.60	-.846
	여	332	8.42	3.90	
일상생활의 장애	남	226	7.86	3.52	-.059
	여	332	7.88	3.11	
금단	남	226	10.22	3.87	-1.563
	여	332	10.76	4.16	

높았다. 그러나 모든 하위영역에서 성별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휴대전화이용수준,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간의 관계

휴대전화이용 수준과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9>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휴대전화이용의 하위영역은 자기통제력과의 상관계수($r=-.28 \sim -.32$)가 자기효능감과 상관계수 ($r=-.12 \sim -.2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9> 휴대전화이용 하위영역,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간의 상관관계

(n=558)

	휴대전화이용수준					
	1	2	3	4	5	6
휴대전화 이용수준	1. 휴대전화통제	1.0				
	2. 정서적 의존	.67***	1.0			
	3. 일상생활장애	.71***	.67***	1.0		
	4. 금단	.60***	.69***	.58***	1.0	
5. 자기효능감	-.15***	-.14***	-.21***	-.12**	1.0	
6. 자기통제력	-.32***	-.28***	-.30***	-.29***	.47***	1.0

p < .01, *p < .001

휴대전화이용의 하위영역인 휴대전화통제, 정서적 의존, 일상생활장애, 금단은 자기효능감과 각각 $r=-.15(p<.001)$, $r=-.15(p<.01)$, $r=-.21(p<.001)$, $r=-.12(p<.001)$ 의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통제력과 휴대전화통제, 정서적 의존, 일상생활장애, 금단은 각각 $r=-.32(p<.001)$, $r=-.28(p<.001)$, $r=-.30(p<.001)$, $r=-.29(p<.001)$ 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비록 초등학교생의 휴대전화 이용정도가 중독수준은 아닐지라도 휴대전화 이용이 많은 아동일수록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휴대폰이용 수준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고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전화 이용수준의 하위영역에 따른 평균은 금단영역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휴대전화통제, 정서적 의존, 일상생활의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이용 초기에는 휴대전화에 대한 강박적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금단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휴대전화 활용내용은 대단히 비정상적, 비교육적인 것으로 휴대전화 고유의 통화기능보다 게임, 인터넷 등의 부가적인 기능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최병목 외, 2005). 그러므로 초등학교생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중재프로그램에는 휴대전화에 대한 강박적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인 활동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휴대전화사용 수준은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하위영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위영역은 휴대전화통제영역과 일상생활의 장애 영역에서 나타났다. 휴대전화의 이용수준의 전체평균을 보면, 5학년($M=34.29$)과 6학년($M=36.54$)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이용에 대한 통제력 감소와 일상생활장애 영역이 의미있게 증가하였다는 점은 초등학교생 휴대전화 중재프로그램 구성 시 이 두 영역의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5학년과 6학년 간의 1년 동안에 휴대전화이용 하위영역중에서 의미있게 증가하는 영역이 있다는 점은 휴대전화중독에 대한 예방과 교육이 초등학교 시기부터 필요함을 시사한다

고 볼 수 있다.

셋째, 성별에 따른 휴대전화이용의 하위영역별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 통제영역만 제외하고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의 성 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중독적 이용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양심영(2002)의 연구를 제외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곽민주, 2004; 양심영, 2002; 임경미, 2005; 장혜진, 2002), 대학생(한주리, 허경호, 2004) 및 성인(김병구 외, 2006)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중독적 이용자라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생은 휴대폰 소지연수가 오래되지 않아 성별 차이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휴대전화이용 하위영역과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휴대전화통제, 정서적 의존, 일상생활장애, 금단 증상이 강할수록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집단에서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박덕호, 2003; 임경미, 2005)와 자기통제력이 낮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임경미, 2005; 장은순, 2006; 장혜진, 2002)를 지지한다.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은 학업과 밀접한 척도이다. 그러므로 휴대전화 사용이 많은 아동은 학교생활이 산만하고 수업에 열중하지 못하는 학업의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휴대전화 사용은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다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제한점을 통한 후속연구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이용에 관한 본 연구는 연구의 회소성 차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초등학교생용 척도가 개발되지 않아 연구자가 임의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가 되며, 연구결과 또한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과는 다른 초등학교생의 휴대전화이용 특성을 반영한 휴대전화이용 척도개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휴대전화이용과 관련변인을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 등 심리적 요인에만 한정된 것이 아쉽다. 심리적요인 외에도 성격적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환경·문화적요인, 매체적요인 등 광범위한 관련변인 탐색을 통한 초등학교생 휴대전화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초등학교생, 휴대전화,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참 고 문 헌

- 강동진 (2005) 내외통제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휴대폰의 과다사용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재학 (2006) 휴대폰에 빠진 내 아이 구하기. 예담.
- 곽민주 (2004)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실태와 중독적 이용.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구, 윤상오, 이해경 (2006) 휴대전화 중독 원인분석. 연구보고 06-1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김선남, 김현욱 (2003)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8(4), 88-116.
- 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영순 (2004) 고등학생의 휴대폰 중독과 심리성숙도와의 관계.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2007)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수준에 따른 자기통제력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인 (2007) 초등학교 고학년의 휴대전화 사용 정도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 (2003) 휴대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 충동성.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현미 (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대학생 휴대폰의존 심각”(2002, 11. 1) 한국경제. 자료검색일 2008, 1. 5, 자료출처 <http://www.hankyung.com>
- 박덕호 (200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중독증과의 관계: 인터넷 및 휴대폰중독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원영 (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심영 (2002) 고등학교 청소년의 휴대폰중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02-R24. 한국청소년개발원.
- 유홍립, 윤상오 (2007) 휴대전화 중독 원인에 관한 연구(pp. 1-37). 한국지역정보학회 하계 국제 세미나: U-City와 미래도시 전망.
- 윤숙진 (2004) 중고교생의 충동성 및 자기효능감과 인터넷사용간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선, 이정화 (2008) 아동의 컴퓨터게임이용 실태에 따른 게임몰입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3), 15-22.
- 이계원 (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규 (2002)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 고찰.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길 (2005) 고등학생의 휴대폰 사용 유형, 우울, 충동성과 휴대폰 과다사용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순목, 반재천, 이형초, 최윤경, 이순영 (2007) 인터넷 중독 진단방식의 전환: 기준참조평가에서 영역참조평가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213-238.
- 이은형 (2006) 초·중·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성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명신영 (2007)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실태 및 휴대폰 중독 정도에 따른 또래관계의 질,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67-86.
- 임경미 (2005) 중학생의 휴대폰 중독과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은순 (2006)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동기와 중독의 관계.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혜진 (2002)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보통신부 일반통계 (2008, 2. 20) 유·무선 가입자 현황. 자료검색일 2008, 2. 23, 자료출처 <http://www.mic.go.kr>
- 정재원 (2006) 중학생의 가정환경과 휴대전화 중독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휴대전화 중독’(2004, 3. 31) 일요시사428호. 자료검색일 2008, 1. 5, 자료출처 <http://www.ilyosisa.co.kr/SUNDAY>
- 최병목, 조규영, 연화준, 정무환 (2005)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조사연구. 연구보고 05-08.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3) 2003년도 디지털 콘텐츠 해외 시장보고서: 모바일 콘텐츠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한주리, 허경호 (2004) 이동전화 중독 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보, 48(6), 138-165.
- 황광민 (2005)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불안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Schunk, D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 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86-598.
- Goldberg, M (1996, August) Internet addiction disorder-Diagnostic criteria. Retrieved November 1, 2007, from <http://www-usr.rider.edu/~suler/psyber/supportgp.html>
- Kopp, CB (1982) The adolescents of self-regulation a

-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Kraut, R, Patterson, M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y*, 53(9), 1017-1031.
- Logue, AW (1995) *Self-control*. New York, Prentice Hall.
- Suler, J (1996, January) The Psychology of Cyberspace. Retrieved November 1, 2007, from <http://psydok.sulb.uni-saarland.de/volltexte/2004/117/html/psyber/psyber.html>
- Young, K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 237-244.
- Zimmerman, BJ, Bandura, A (1994) Impact of self-regulatory influences on writing course attainmen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1, 845-862.

(2008. 1. 29 접수; 2008. 4. 8 채택)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김혜경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